

### 광주전남병무청, 아동센터지원단과 업무협약



광주전남병무청(청장 최규석)이 최근 지역 아동센터광주지원단과 아동시설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 아동센터에 우수 사회복지요원을 제때 충원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병무청과 아동센터 지원단은 지역 아동분야 복지증진에 상호 협력하고 사회복지요원 관리보호·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시에 820명의 사회복지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복무 중이며, 이 중 10%인 82명이 아동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다른 복지분야에 비해 사회복지요원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재정 환경이 열악한 아동시설의 인력부족과 아동들의 학습지도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력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257명 합격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교육참여 수당 등 지원

(재)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은 7일 “청소년미래재단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와 전남 22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270명이 지원한 2021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257명(95.2%)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초·중·고졸 과정 합격자는 각각 13명, 32명, 212명이다.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인 청소년미래재단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변 검정고시 합격 지원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실 운영과 시험장 도시락 지원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는 지난 8월 11일 남양중학교(무안), 순천팔마중학교에서 시행됐다.

청소년미래재단 양미란 원장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검정고시, 교육참여 수당, 청소년 직업체험, 진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전라도교육청, 22개 시·군은 공동사업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초등생 나이 청소년에게는(2009년~2012년생) 월 5만 원을 교통카드, 중학생(2006년~2008년생) 나이는 월 10만원, 고등학생 이상(1997년~2005년생) 월 20만원을 체크카드에 적립해준다. 지원금은 교육과 진로 개발을 위한 교통비, 간식비, 교육비, 문화활동비로 사용해야 한다.

전남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22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센터 프로그램을 월 6회 이상 참여하면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1-242-7474)로 연락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프랑스 국민배우 장폴 벨몽도 별세



한 시대를 풍미한 프랑스 국민배우 장폴 벨몽도가 88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고 AFP, AP 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80편에 달하는 영화에 출연하며 1억 3000만장이 넘는 티켓을 판매한 벨몽도는 프랑스 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장뤼크 고다르, 프랑수아 트뤼포, 알랭 레네, 루이 말, 장피에르 멜빌 등 1960년대 프랑스 영화 운동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감독들과 많은 작품을 함께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벨몽도는 가장 장 뤽 고다르 감독의 데뷔작품 ‘네 멋대로 해라’에 출연한 뒤 스타로 떠올랐고, 이후 80여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프랑스 영화계를 지탱했다. 알랭 들롱과 함께 1960~70년대 프랑스의 대표적인 남자 영화배우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지방의 작은 연극 무대에서 처음 연기를 시작한 그는 1958년 단편 영화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으로 고다르 감독과 처음 연을 맺었다.

벨몽도는 예술영화뿐만 아니라 액션 영화, 코미디 영화까지 여러 장르를 넘나들었고 경찰, 도둑, 신부, 비밀 요원 등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며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남겼다.

/연합뉴스

### 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 나주 영아원에 방역물품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단장 박용순·왼쪽 두번째)은 7일 나주 이화영아원을 찾아 임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마련한 150만원 상당 식료품·방역물품을 전했다.

(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 제공)

### 동구민 1인1자격 그림책 교육지도사 과정 종강식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7일 평생학습관에서 ‘동구민 1인1자격 그림책 교육지도사 3급 과정’ 종강식을 개최했다.

(광주 동구제공)

### 조선대 안동규 교수 세계생산공학회 정회원 선정



조선대학교 안동규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가 국내에서는 총 8명이 활동 중인 세계생산공학회(CIRP)의 정회원인 어소시에이트 멤버(Associate Member)로 선정됐다.

독일 뮌헨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70회 세계생산공학회’ 총회에서 안동규 교수는 우수 연구자로서 정회원인 어소시에이트 멤버(Associate Member)로 선출됐다.

세계생산공학회(CIRP)는 올해 70년이 된 기계공학 생산 및 설계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로 전 세계 생산 및 설계 공학분야 선도 50여개 국가의 우수 연구자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생산 및 설계공학의 최신 연구와 학술활동을 선도하는 대표 학술단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활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35 아모르피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 좋은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40 와이드 맵 플러스(재)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전라남도의회 하반기 도정질의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슈 픽 썸과 함께 스페셜 50 운동맛집 5분 레시피 55 UHD 숨터	00 경찰수업(재)		00 애니갤러리 30 헬로키티11 45 애니메이션 런닝맨 2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노래가 좋아(재)	00 12 MBC 뉴스 20 주라기킵스3 35 똑딱구조대 5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네트워크특선 이스트 라이프 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20 영상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꾸러기 식사교실 50 전라남도의회 하반기 도정질의	55 덕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 동물티비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브레드 이발소 2(재)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55 5 MBC 뉴스	00 행복설계 알짜배기(재) 55 덕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V-우주수호대 15 종알종알 돌돌이 30 풀짚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50 0매 전라도	50 덕터 365 55 테이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랜선 장터	00 구해줘! 속속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표리부동	30 라디오스타	40 백중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튜디오 K		
[12]	10 KBS 다크 클래식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10 오마이싱어	20 나이트라인 50 덕터 365 55 박미선과 돈우리 돈해피(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기상어 울리와 윌리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역사놀이매 아리아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요몽3	12:10 극한직업	19:05 미스터 마구
07:15 출동! 슈퍼핑크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EBS 다크프라이밍	19:50 건축탐구 - 집
0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똥덩량 유치원	15:25 클래식 e	<인사이드 아시아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히말리아 인생, 내필
08:45 꼬마버스 타요	16:00 마사와 곰	21:30 한국기행
09:00 시흥	16:15 개구쟁이 조이	<나의 고향으로 오라 3부
09:15 봉우야 말해줘3	16:30 똥덩량 유치원(재)	니랑 내랑 날 줄 보소, 밀알아리랑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득이	21:50 EBS 다크프라이밍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2:45 바닷가 사람들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8일(음 8월 2일 己未)

36년생 우연한이 아니라 누워진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8년생 짐작으로 판단한다면 큰 일 나겠다. 60년생 생방의 의사가 합치되는 흐름이 보인다. 72년생 생 아니 되는 것을 감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84년생 현재에 휘둘러된다면 그 즉시 후회만 한다. 96년생 격식에 맞아야 재 빛을 발하리라. 행운의 숫자 : 31, 75	42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출몰이 있을 수 있으니 매사에 삼가는 것이 정답이다. 54년생 여분이 결정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66년생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힐 것이다. 78년생 참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90년생 시기와 구체적인 범위의 구획에 따라 그 성과는 천차만별 하리라. 02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게 하라. 행운의 숫자 : 21, 93
37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순탄하다. 49년생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일단 수용하고 보면 괜찮을 것이다. 61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73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5년생 부탁하러 갔다가 오히려 청을 듣고 오는 격이로다. 97년생 허구하여 왔던 바를 성취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6, 80	43년생 힘든 와중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었다. 55년생 단 번에 끝내려 한다면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67년생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79년생 빈틈없이 도모한다면 기필코 이루어지리라. 91년생 부수적인 일에 얽매어 말고 주된 요건에 충실하라. 03년생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60
38년생 주변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판단하라. 50년생 진행해도 무리가 없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다. 62년생 이면의 결함을 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 74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으로부터 얻는 바가 있으리라. 86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 98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5, 97	32년생 술에 넣은 팔이라도 익혀야 먹는 법이리라. 44년생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중용이 무난하다. 56년생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68년생 관리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80년생 보다 큰 정보로 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92년생 아예 하지 않을 만 하라. 행운의 숫자 : 06, 81
39년생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손을 쓰면 소용이 없다. 51년생 한일 부질없는 욕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63년생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헛수고를 하는 셈이다. 75년생 처음에는 고 통스러우나 나중에는 편안하리라. 87년생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대하라. 99년생 사랑이 깊은 이는 미움 또한 깊은 법이겠다. 행운의 숫자 : 05, 53	33년생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45년생 기대는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7년생 괜히 굶어서 부스럼 낼 것까지는 없으니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69년생 기본적인 것의 파악에 충실해야만 중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81년생 순리대로라면 행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하리라. 93년생 보람찬 일들로 인해서 살맛나겠다. 행운의 숫자 : 49, 73
40년생 초기에 핵심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 52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64년생 만남은 있으나 탐색전에 불과한 구도이리라. 76년생 사제가 중합적으로 집약된다면 능률적이다. 88년생 해낼 수 없는 일이니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00년생 다 뭉개져 버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7, 65	34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은 법이다. 46년생 좋은 인연과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58년생 이미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 전개 되었다. 70년생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리라. 82년생 포기하지 말고 진행한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94년생 거침없는 행보를 내딛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29, 61
41년생 초기의 효력이 계속 유지 되겠다. 53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5년생 혼란스러울 때 유익한 조언자가 나타나는 동세이다. 77년생 남을 닮아가기 전에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는 것이 옳다. 89년생 합구하고 있어야만 효과를 보는 법이다. 01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2, 64	35년생 뜻밖의 행운이 보이니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도록 하라. 47년생 불균형이 보이니 자체하지 말고 바로 잡자. 59년생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느니라. 71년생 느린 그대로 인식해야 착오가 없을 것이다. 83년생 애감을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95년생 복합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부합해야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78